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인문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민국의 주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주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경선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계웅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일회)

하나님과 우주 안에 거하는 우리와의 관계

성경이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언급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다. 현대의 세계관은 과학이 천당과 지옥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현대과학이 이 분야에 대하여 정확하게 비판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우주의 신비한 것들이 자연계를 넘어선 초자연적 세계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놀라운 체험을 고백하며 자랑한다. 그러나 십자가에 걸려 죽을 때는 큰 이익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빠져 있다. 그러나 그는 4차원의 세계를 언급하고 있다. 천당은 3차원의 세계에서 멀거나 가까운 것이 아니다. 현재의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나 사고로서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분명히 천당은 어떠한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자체에 시공간이 있으며 또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등이 되어 비취는 곳이다.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곳이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는 곳이다.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곳이다(계 21:6-7). 애초부터 사망이나 눈물도 슬픔도 고통하는 것도 현실의 모든 것이 지나간 곳이다(계 21:4, 23-27). 바울은 이것을 설행 하리라 고백한다고(후 12:2).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곳이다. 인간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에 너무나 한계가 있다(고후 12:4-5).

첫째 천당은 우리의 환경이라고 언급할 수가 있다(빌 4:7). 둘째는 별들의 세계 곧 우주이다. 솔로몬은 이 두 종류의 하늘에 확실한 지기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왕상 8:27). 즉,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곧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이 가장 높은 하늘은 본질적으로 별들이 있는 곳과는 다른 곳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곳임을 언급할 수도 있다(왕 17:27-28). 다시 말해서 천당이 시간과 공간을 떠난 초자연적인 질서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공간 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실 새 땅과 새 하늘에 있을 시간과 공간, 힘과 물체의 성질은 지금의 우주 안에 있는 것과 다를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꼭 채워질 것이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므로써 하나님의 보좌도 옮겨질 것이다(계 21:10-11).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광대함에 비교하면 보잘 것 없는 존재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는 귀중하다. 하나님께서 이 찬란한 우주를 만드신 이유 중의 하나는 그의 엄청난 위력과 영광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다(롬 1:19-20).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야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새 생명의 화복에 응답 할 준비가 될 것이다(히 2:3, 9-11). 우주의 방대한을 더 깨달을수록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 작은 지구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은 신자나 하나님을 살피시며, 자연을 볼라고 계신다(욥 7:17-19). 십자가에서 죄 값으로 행할 받는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눅 23:42-43).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다(히 3:1; 골 1:13-14, 20). 우주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은총의 관계이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믿는 우리와의 관계이다. 비빌이이다(골 1:26-28).

놀라운 우주, 지구, 믿는 자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놀라운 천국, 하나님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크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의 계획의 중심으로 삼으신 것이 믿을 수 없게 보인다! 해도 보잘 것 없는 우리 인간이 위해서 치르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은 믿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낮고 낮아지신 것이다(사 53:3-4). 우리가 우주의 엄청난 위대함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 스스로 취하신 그 수욕과 겸손에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 값을 그의 피로 대신 갚아 주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곤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0-12). 아멘.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셔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우주 안에든 다 채워질 수가 없다(시 8:1, 3, 4).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 인생이 인생 자신을 살펴보면 볼 것이 없다. 인생은 단지 태어나서 죽는 허무한 존재이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흙으로부터 빚어 만드셨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고백한다(시 144:1-2). 사람이 무엇이관대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관대 저를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은 햇빛같은 그의 날은 지나가는 것 같아 같은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다(시 144:3-4).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시며 누구든지 생명의 행을 기록된 자는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신다(요 14:2-3; 계 19:15).

복음의 진리대 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있을 때에만 복음의 진리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설립한 지 52년이나 되었습니 다. 뒤를 돌아보면 그 어느 일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요 1:16). 그러나 우리는 자만해서 안 됩니다.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는 진리 등대가 되어서 험한 바다를 비추며 물에 빠져 죽어 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진실로 중요함이다. 따라서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 시에 행해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깨끗이진 살과 흘리신 피를 마음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 번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 특히 교회 연합예배로 드리는 2부·3부 예배와 오후 찬양예배 시에 있는 특별 찬양을 통해서 온 가족과 교회가 십자가 은혜로 하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무던은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워 일어나십시오(살전 5:6). 그래서 교회 설립 52주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진리 등대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벧전 1:13).

***오늘(4일) 제 6차 성찬식
1부부터 5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2부·3부 예배는 가족 연합예배/영아·유아·유아부는 자체 예배

***오늘(4일) 교회 설립 기념 특별 찬양이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DANIEL'S FAITH

*⁽⁸⁾ As for me, I heard but could not understand; so I said,
 "My lord, what will be the outcome of these events?" ⁽⁹⁾ And he said,
 "Go your way, Daniel, for these words are concealed and sealed up until the end time.
⁽¹⁰⁾ Many will be purged, purified and refined; but the wicked will act wickedly, and none of the
 wicked will understand, but those who have insight will understand. (Daniel 12:8-10)*

Daniel was a man greatly loved by God. As a youth, Nebuchadnezzar took him and others captive to Babylon, a foreign land filled with new customs and different religions. After he recited and interpreted Nebuchadnezzar's dream, the king gave him a place of prominence and responsibility over his kingdom. Daniel spent the rest of his life there as a governmental official and as a prophet of the true God, serving four different kings: Nebuchadnezzar, Belshazzar, Darius, and Cyrus. His life of faith was very difficult in this foreign land, yet he persevered.

From the very beginning, Daniel made up his mind to follow God. The king ordered the chief of his officials to select some young men from the sons of Israel "in whom was no defect, who were good-looking, showing intelligence in every branch of wisdom, endowed with understanding and discerning knowledge, and who had ability for serving in the king's court," to learn the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Chaldeans (1:4). Daniel was among one of the young men chosen for this three-year education program, specially designed for the king's personal service. The commander of the officials changed his name to Belshazzar, and ordered him to eat his daily rations from the king's choice food and from the wine that the king drank. "But Daniel made up his mind that he would not defile himself with the king's choice food or with the wine which he drank; so he sought permission from the commander of the officials that he might not defile himself" (1:8). Daniel chose not to eat meat that had not been slain in accordance with the Mosaic Law and that, along with the wine, had been offered to a pagan god.

Daniel refused to follow ungodly rules. His defiance against the king's orders was very dangerous, especially as a slave. Receiving special treatment requires going along with the system, but Daniel decided to go his own way. His faith required him to go in a different direction, which is why he asked the commander for a favor. The commander was deathly afraid of the king, and did not want to risk losing his head by not following the king's orders. He knew that if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did not eat right, the king would notice their haggard appearances, but God granted Daniel "favor and compassion in the sight of the commander," so that he granted a ten-day trial period (1:9). At the end of ten days, Daniel and his friends appeared "better" and "fatter" than the rest of the group, so the overseer "continued to withhold their choice food and the wine they were to drink, and kept giving them vegetables" (1:15-16).

God helped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He gave them "knowledge and intelligence in every branch of literature and wisdom; Daniel even understood all kinds of visions and dreams" (1:17). At the end of their three years of training, only Daniel and his friends entered the king's personal service. "As for every matter of wisdom and understanding about which the king consulted them, he found them ten times better than all the magicians and conjurers who were in all his realm" (1:20). Daniel chose to go God's

way. He did not compromise. Although his life's circumstances constantly changed, his mind about God never changed. Trials and tribulations fill every believer's life. No matter what the difficulties may be, as a believer you cannot walk on the wide path. You cannot go the world's way. God is with the narrow travelers. He blesses those who choose to go His way.

Daniel's decision to go God's way allowed God to open his eyes to special revelations. He was able to see and understand godly things because of his faith. If you believe in people, you cannot see God's workings, but if you believe in God, you can see! When Nebuchadnezzar had a troubled dream, and wanted to know what it meant without telling anyone what it was, "the mystery was revealed to Daniel in a night vision" (2:19). The king's top officials told him, "There is not a man on earth who could declare the matter for the king...no one else could declare it to the king except gods, whose dwelling place is not with mortal flesh" (2:10-11). Daniel's faith allowed him to see and interpret the king's dream because he knew that "wisdom and power" belong to God (2:20). Over time, Daniel explained another dream to Nebuchadnezzar (chapter 4), and even translated the finger writing on the wall for Belshazzar (chapter 5). Even non-believers recognized that Daniel had "an extraordinary spirit" that gave him knowledge and insight, and the abilities to interpret dreams, explain enigmas, and solve difficult problems (5:12). His gift of revelation came from his faith.

Daniel was a man of prayer. Even though King Darius issued a decree ordering everyone in his kingdom to make their petitions to him alone, or else he would throw them into the lion's den, Daniel continued to pray to God. "Now when Daniel knew that the document was signed, he entered his house (now in his roof chamber he had windows open toward Jerusalem); and he continued kneeling on his knees three times a day, praying and giving thanks before his God, as he had been doing previously" (6:10). Daniel was a faithful believer. The king's men knew Daniel worshipped God, prayed regularly, and could see special revelations. They knew he was a man who did not compromise with worldly authority. Their jealousy led them to make this prayer trap. They hated him and wanted him dead. They thought their plan was full proof, but it was not. God rescued Daniel from the lions' den. King Darius declared, "men are to fear and tremble before the God of Daniel; for He is the living God and enduring forever, and His kingdom is one which will not be destroyed, and His dominion will be forever" (6:26).

In today's Bible verses, God tells Daniel, "Go your own way" (12:9). What is Daniel's way? It is the way of faith! He made up his mind to go with God, and to pray every step of the way. He chose the narrow path, the one without compromises. With Daniel as an example, please my beloved friends,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1 Cor. 15:58). Amen. 🙏

다음을 주일 설교

다니엘의 믿음

- (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삽나이까
 (9)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단 12:8-10)



김성환 목사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왕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곳은 낯선 문화와 종교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자 그를 요직에 앉히고 바벨론의 모든 곳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부 관료로 재직하는 동안 네 명의 왕 곧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를 섬깁니다. 또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낯선 타국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뜻을 정한 믿음

처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은 환관장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1:4).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왕 앞에 서기 위해 삼 년간의 특별 교육을 받았는데 다니엘 또한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트사살이라 바꾸고 왕이 정하여 준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1:8). 다니엘은 모세의 율법에서 금한 고기와 이방신에게 드려진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규칙들을 거부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 종하는 것, 특별히 포로된 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체제에 순응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에게 다른 길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한 까닭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환관장은 왕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제대로 먹지 않는다면 왕이 곧 그들의 뉘룩한 모습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1:9). 환관장은 그들에게 열흘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열흘 후 그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윤택이 나는 것을 본 환관장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공하고 제식을 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1:15-16).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의상과 몸조를 깨달아 알더라”(1:17). 삼 년간의 교육이 끝난 뒤 오직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만이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골백배로 심 배나 나는 줄을 아니라”(1:20). 다니엘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인생길에는 시험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타지라도 믿는 자들은 세상길로 향하는 넓은 길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게는 순례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길

을 걷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신령한 일을 깨닫는 믿음

다니엘이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 특별한 이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 덕분에 신령한 일들을 보고 이해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신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어느 날 이상한 꿈으로 인해 마음에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꿈에 대해 알리지 않고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 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2:19). 갈대아 술사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2:10-11). 다니엘은 믿음으로 왕의 꿈을 보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2:20). 다니엘은 여러 차례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4:3). 또한 벨사살왕에게 손가락이 벽에 쓴 글을 풀이해 주기도 했습니다(5:23).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다니엘에게 특별한 신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신이 그에게 지식과 총명을 주어 꿈을 해석하며, 불가사의한 일을 설명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5:12). 다니엘이 지닌 계시의 능력은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왕이 금령을 내려 자신 외에 그 누구도 섬기지 말 것을 전국에 명하여 그것을 어길 경우 사자 굴에 던지기로 결정했을 때조차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6:10). 다니엘은 참으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통해 특별한 이상을 보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세상적인 권력과 타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니엘의 기도를 빌미삼아 그를 망하게 할 계락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미워했고 그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다리오왕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찌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임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6:26).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12:9). 다니엘이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결단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좁은 길을 선택하여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좇아가십시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아멘. ■

신약의 교회 (행 2:37-47)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 못 박은 곳이었습니니다. 또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를 부인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천국의 메시지는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죄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행 2장).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선, 말씀을 통해 절임을 받고 회개하는 교회였습니다. "...마 음에 찢려...우리가 어찌할고 하리" (37절).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39절). 세 번째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 이처럼 신약의 교회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참된 타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령하사 피 흘려 샅으니"(찬 242장). 올해 중현교회는 설립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무 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올해만 해도 2,500명 이상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 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더욱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결과를 놓고 자랑과 교만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흥의 은혜가 넘치수록 더욱 자기를 할만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까(마 16:24).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사왕의 생애를 보십시오(대하 16:7-14). 대제사장 엘리를 보십시오(삼상 3:11-14). 이들처럼 우리 가 교만하여 십자가를 놓고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거 든단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든단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전하 는데 생명을 거십시오!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위임목사님)



대학부 D국 선교팀 후기

♥ 나의 인간적인 욕심에도 불구하고 ~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지켜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갔다.

도착한 선교지는 들린 대로 엄청난 습기가 우리를 에워쌌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며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처음엔 받는 것보다 거절하는 쪽이 더 많았다. 눈물도 나고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였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라며 처음부터 잘 할 수 없는 거라고, 더 잘 하길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에 불과하다는 탐관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 하심에 따라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니다.

(나지원)

♥ 하나님의 크신과 높으신, 선하심을 알게 되고 ~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알게 될 때면 그분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단기선교 사역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크신과 높으신, 그리고 선하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뿌연 안개, 황폐한 땅, 수많은 우상들... 그곳은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땀처럼 지체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천국을 사귀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매일 코란을 읽으며 기도를 쉬지 않는 안내인에게도 복음을 영접케 하셨다. (장태은)

♥ 거저서만한 복음이 자라 결실을 맺길 ~

군인들의 사내 총격전으로 거리로 나가지 못하고 숙소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이 경험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한 수 많은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단기선교를 통해 언어를 평상시에 더 잘 준비해 두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고, 나의 경험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적은 것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 단기선교팀이 뿌린 거저서만한 복음이 자라 결실을 맺길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김재형)

장로 칼럼

초대교회로 회복되는 17교구

"지도 선교가 되니까?" 질문하는 교구 식구의 질문에 당황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선교를 위해 자신의 집을 열어 주고 지역장이 중심이 되어 구역 식구들과 한마음으로 기도 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교구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회가 더 이상 친목회화 아니고 전도회는 전도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젠 성도들이 과거와 달리 직접 전도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회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중 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모이거나 하면 나누었던 집단한 세상 이야기기 더 이상 회화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제일 큰 은혜이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금요 집회에 스스로 달려 나오는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구테의연한 우리의 신앙은 금요 집회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천국복음, 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악의 문제, 부활, 신자들의 미래의 몸, 시간..." 등 참으로 중요한 성경의 진리 들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기쁨은 눈물과 결단으로 나타나고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 저회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성도 들은 기쁨으로 이웃을 권면하여 금요집회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에 성경 읽기와 성경봉독에 더욱 열심을 갖는 식구들이 늘 어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전도 총동원 주일로 정하여 기도하며 일정한 태신자를 이 날에 초청 하고 믿음으로 해산하는 날로 정하고 온 교구의 식구들이 사방으로 양육하기로 작정하는 날입니다. 매 분기 말에는 모든 일꾼들이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나태한 모습을 회개하며 다 시 한 번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 주일 4부 예배 후에 갖는 교구 모임은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장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교구에 소 속된 시온 찬양대의 수고와 많은 예식(결혼식, 장례식)들을 통해 교구 식구들은 더욱 하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 도를 받는 식구들이 많아졌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교구가 되었습니다. 저회 17교 구는 성당시에 사는 성도들로 수장구, 중언구, 분당구 중심으로 7구역, 29구역으로 편성되었고 현재 315세대 805명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회 교구는 아는 것을 말하고 큰 것을 증거하는(요 3:11) 교 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요 17:3)을 깨닫고 "땅 끝에서 이르러 내 중언이 이르러"(렘 1:8)하신 말씀을 따르는 교구를 소망하며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를 부인하며 모든 교구 식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석민(17교구장)

Y국에서의 3개월

오직 주님밖에

선교지의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알게 되었을 때 심한 좌절이 되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주님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쾀뽀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 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나라”고 말한 믿을 없는 정탐꾼들의 말과 같이 우리의 상황도 그와 같았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쾀과 풀이 흐르는 땅이니라”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생각나게 하였고 더욱더 기도하게 만드셨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Y국에는 아직도 선행만으로 천국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불교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권력을 잡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그런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땅의 우상들이 무너져도록 그 땅에 우리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믿고 기도해야 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오상현(대학부)



Y국은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으로 부르셨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향해 달려 나아가기를 원하셨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훈련들을 시키셨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던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셨다.

우리는 3개월 동안 많은 현지인들을 사귀고 복음을 전했다. 3개월이라는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내용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몸은 비록 돌아왔지만 더욱더 그 땅을 향해서 추복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과 편지와 이메일 등으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믿기 에 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복음을 전해 주고 추복하고 기도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신다.

김홍현(대학부)

▲ 이번 주에 졸업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9월 5일(월) - 9월 13일(화)	장로1	김연근	9월 6일(화) - 9월 15일(목)	8교구 주거	김해일
9월 6일(화) - 9월 14일(수)	11교구 7지역	박호영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8월 30일(화) - 9월 6일(화)	17교구 1지역	현승조	8월 30일(화) - 9월 8일(목)	8교구 9지역	이인원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8월 22일(월) - 8월 30일(화)	소망부2	한민교

누가 각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만도 놀라운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농아인들을 향해 복음들을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공황에서 선교지까지 열차로 장시간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 둘 승객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절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열차 안이 선교의 불길로 뜨거워졌음을 느꼈을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우리는 시장과 공원을 다니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예비해 두신 현지 농아 영혼을 찾아 열심히 걸다녔고, 피곤하였지만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공원과 시장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농아인은 어쩌나 반갑던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주님의 마음을 몸소 체험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있던지요. 우리 모두는 무더운 날씨와 피곤함도 잊고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올 때 그 동안 맡았던 하늘이 도착하자마자 장대 소낙비가 쏟아져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노방전도에서는 아주 소수의 농아인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현지 농아인 협회에서의 사역에 역사하시길 기도했습니다. 현지 농아인 협회를 방문했을 때 협회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아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고 협회장과의 면담에서 2년만 빨리 왔으면 이단 종파의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말에 주님께 한없는 부끄러웠고 우리의 게으른 신앙을 회개했습니다. 다음날 놀람게도 52명의 농아인을 준비하여 주서서 준비해간 ‘돌아온 땅자’의 성금을 보여주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라고 목격했 외쳤습니다.

이단종파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큰 재목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 같이 유리하는 선교지의 농아인을 위해 “누가 각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들을 듣는 듯하였습니다. 현지에 농아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가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노지은(에바다부)

담대함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커다란 모자의 경찰과 매서운 눈초리의 사복 경찰, 그리고 사냥개 짖어대던 황소만 한 개들... 생각만 해도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보내 주시고 만나게 하심으로써 얼마나 큰 위안을 주셨는지요. 참으로 부족하고 죄인 중의 피수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를 주님의 일에 쓰시려고 몇 년 전부터 권유하시어 귀하고 귀한 선교사역에 동참케 하시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마냥 감사드릴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월급쟁이인 사십대 가장이 휴가철도 아닌데 아홉날 씩이나 휴가를 낸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역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저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가정과 직장은 주님이 잘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일에만 매여나날 수 있는 날이었습니.

햇볕은 따갑고 하늘에는 훈련지가 가득한 곳입니다. 밀밭은 불이 날 정도로 건조하고 더운 날입니다. 다리는 개에 물려 상처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따끔거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웃음을 흘렸던 채 일하다가 웃다가 전한 복음을 들은 청년과 주름투성이의 노인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나 전권코미티나 떨어진 나선 지방 땅에서 현지인들의 말은 알아듣지 못 해도 “예수님 믿으세요”를 외쳤습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만을 하루 종일 수 없이 되풀이 하는 이곳에서의 삶은 마치 이 땅에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이 땅에 뿌리진 가져오지, 자꾸 서 땅에 착근된 루키였습니다. 말씀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떠나야만 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제 시작한 이곳에 준비된 영혼들과의 만남이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음을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담당하시어 성령사역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써 이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을 확신합니다.

송영삼 (집사, 6교구)

주님의 보배들

유아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주일마다 점점 더 많은 감사가 차곡차곡 쌓여만 갑니다. 교사를 하기 전에는,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아이들과 생활하기에 아이들을 대하고 다루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전 제 교만이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과시간 10여 분도 아이들 분위기에 휩쓸려 공부를 제대로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매 시간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기 초 심방, 주중에 전화 심방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임을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학기 초 직접 심방 원칙이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의치 못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방이 주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겨울 성경학교에 많이 참석하였고 학부모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아이들을 파악하고 전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언니처럼 혼자서 씩씩하게 예배드리는 계연이, 선생님께 할 얘기가 많은 의젓한 기유, 아직 말은 늦지만 선생님 쳐다 보면 눈웃음치며 만기는 종호, 선생님께 안겨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통통이 정연이, 언제나 다소곳하고 예쁜 유빈이, 아직도 수줍기만한 지원이, 7월 첫 주 드디어 "네" 하고 대답한 우리 반 막내 현민이, 조용히 선생님 옆에 앉아 예배 잘 드리는 우진이, 아직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빠랑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민준이, 아직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속히 유아부에 나오기를 기도하는 신당

약수구역에 사는 윤성이, 헤어지기 전 선생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곤 했던 이젠 시키지 않아도 크게 "아멘" 하는 부쩍 자란 사랑스런 우리 반 보배들, 주님의 보배들!

주일 아침이면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까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진옥 (집사, 유아부 교사)

부족한 나를 쓰시는 주님

용정복 (새가족 양육부 7월 수료자)

중국 교포로 어린 자녀와 남편을 중국에 남겨 두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부에서 6개월 공부를 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정들자 이별 이네요." 처음에는 아무리 들어도 제 머리 속에는 남지 않았는데 몇 개월 다니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써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모든 일의 결과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시험을 주셨고 저는 그 시험으로 인해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2차 청지기 훈련 때 제가 처음 나왔는데도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내 밭 앞의 등불처럼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까지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저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 곁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 1:8).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 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 줄을 또한 알았도다"(전 3:13).

항상 주님의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림교회 사역을 마치고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평택에 있는 방림교회로 여름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유치부에서부터 중학생까지의 어린영혼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학교 기간 동안 그들에게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들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나 변화가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더 많은 달란트를 얻는 것 때문에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나이였을 때 나는 어땠을까? 사실 나도 어린 그들과 같이 달란트 때문에, 아니면 간식 때문에, 선물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기억에 남는 것은 달란트도, 간식도, 선물도, 재물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젊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을 그 때에 나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그 때 선생님들의 나를 향한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방림교회에 나와 이곳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때 그 선

생님들을 통해 나에게 뿌려진 씨앗들처럼, 나를 통해 이곳의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소망하며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림교회와 한국의 농어촌 교회들을 향한 중보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농어촌의 환경상 농어촌 교회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방림교회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농어촌 교회를 향한 중보와 후원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환경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것과 그것에 대해 삶 가운데에서의 행동의 일치와 있어 진정한 신앙임을 하나님께서는 매 사역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각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다른 것을 깨닫았습니다. 이번 여름 참 잘 보냈습니다. 대학부 여름수련회, 단기 선교 그리고 이번 방림교회 여름 사역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 드립니다.

오 현 (대학부)

교회 탐방 78 제 38대 피택장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줄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할 소망이 여기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기 위해서는 늘 애정하신 사람을 부르셨다. 우리 교회에 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피택 장로 여섯 분을 세웠다. 이번엔 38대 장로로 피택된 안수집사님들의 가슴 깊은 곳에 흐르는 보혈의 은사를 나누어 보자.

은총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열네 살 때,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최자용, 안수집사)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 어머니 등에 업혀서부터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길, 안수집사)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으나 어머니께서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상태, 안수집사)

제가 살던 시골에 97년 된 교회가 있었는데 어릴 때, 혼자서 그 교회에 나가면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김규석, 안수집사)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에 다니던 고등학교 2학년 재를 기도 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박상태, 안수집사)

87년쯤 저의 연애했을 깨우치시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고 새벽기도 중에 은총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신성길, 안수집사)

오늘이 있기까지의 신앙의 여정은?

어린 때부터 "그리 아나하실지라도"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여러 해의 연수이었던 결국 돌아갈 주는 주님 품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성길)

아버님 반대를 심했음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상 신앙의 냉각도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동할만한 시련만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박상태)

물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갖고 갖는 자에게 응답을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었습니다. (최자용)

어릴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 되겠다는 각오로 얼마 전부터 세상의 모든 일을 잡고 남는 생애를 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유상태)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는 다녔습니다. 이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십자가의 은총이 저를 믿음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신성길)

어릴 때, 홀로 교회에 다니다 보니 아무도 저를 이끌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아나님의 은사로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김규석)

피택되기 이전과 현재는 어떻게 다른지요?

이전보다 더욱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흑사라고 주의 영광을 기릴까 봐 외연과 행동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유상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각오와 충성 봉사하려는 마음이 들고 특히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자용)

더욱 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믿음을 잊지 않도록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신성길)

더욱 제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상태)

제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더욱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성길)

전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했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나에게만은 아무 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에 더욱 제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규석)

장로로서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각오는?

말씀만을 외치겠습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땅 끝까지 복음만을 외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신성길)

복음에 충실하겠다는 원칙이 우선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만을 전하겠습니다. (박상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려서 섬기겠습니다. (유상태)

모든 일에 자원이자 마음과 양육의 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석)

제 자신을 부인하고 선교와 사역에 충성된 분이 되겠습니다. (최자용)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신성길)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남을보다 낮게 여기며 진실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김규석)

찬송가 468장의 자비처럼 영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참 평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박상태)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유상태)

역시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신성길)

"그리 아나하실지라도"(단 3:18)의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성길)

저희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 앞에 굳게 선 정치가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자용)

말씀을 자들에게 주강하는 자세를 마치 고직 양육의 본이 되라(빌립보 3:3)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으로부터 피택받은 줄은 자랑한다. 나의 죄를 정결히 하소서 하고 삼손... 주 그리스도께 주시어 언제나 주 뜻대로 사용 하여 줄소서(산 35:20장).

(편집)

다음주일 찬송 514장 누가 주를 따라

1877년 10월 "가정 선교(Home Missions)"라는 제목으로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갈(Francis Ridley Havergal, 1836~1879) 영혼은 찬송이다. 이 찬송의 배경은 역대상 12장 1~18절에 있는 사단이 빠평이 된다. 다윗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다윗 사이 다윗에게로 돌아온 아히매와 그 사람 앗셀과 그리고 80인의 두목 아비새가 다윗에게 속하여 다윗은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열매 실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했다. 주의 편에 선 군대는 싸움에서 승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찬송시를 작사하게 된 것이다.

1절은 먼저 누가 주를 따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죄를 떠나 주님을 섬기며 남을 구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라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며 주의 은사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우리가 주를 따라 것을 명한다.

2절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이 세상 영광을 위해 따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은 주님에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를 불러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힘써 일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 길이다.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한사람과 함께하고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것이다. 그 길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버려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의 용기, 능력을 의지하며 전리의 길을 따라갈 때 변함 없는 승리가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기쁜 찬송을 하며 주님의 은사로 주를 따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따라 할 찬양인 것이다.

역대상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한단 원대다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것이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인 이 당신을 도우실바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섬기는 자리에 주님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늘어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모든 순환의 성도가 됩시다.

(전창원회)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529	안지선	10	고동부	고은영(10)	2551	송형기	14	장년부	송해석(14)
2530	한복걸	5	장년부	김진순(5)	2552	유민영	19	청년1부	장유선(19)
2531	원종선	14	장년부		2553	최한나	19	외선부	유민영(14)
2532	이정희	1	소망부	고광현(1)	2554	이도경(바나)	19	외선부	남영애(바나)
2533	김복걸	1	소망부	고광현(1)	2555	백은	19	외선부	남영애(바나)
2534	유복희	5	청년1부	이수영(5)	2556	박영국	19	외선부	박영국(5)
2535	장복희	6	장년2부	조세희(6)	2557	최지안나	19	외선부	장지훈(6)
2536	박영민	6	청년1부	고지영(6)	2558	신다현(바나)	19	외선부	최정원(6)
2537	유지영	19	청년1부	김승현(19)	2559	조혜숙	19	외선부	
2538	박지연	19	청년1부	김승현(19)	2560	류신드	19	외선부	
2539	홍승선	19	대학부	김희옥(19)	2561	김지연	19	외선부	정병준(19)
2540	박진희	19	청년1부	장광남(19)	2562	유하연	19	외선부	김서영(19)
2541	김효주	1	청년1부	조기영(1)	2563	최복희	19	외선부	김진국(1)
2542	전진안	1	청년1부	이유경(1)	2564	김지연	19	외선부	김진국(1)
2543	이진우	19	청년1부	김효숙(19)	2565	나미	19	외선부	남영애(바나)
2544	최승훈	19	청년1부	문재현(19)	2566	유연호	19	외선부	김현배(19)
2545	장영란	8	대학부	조세희(8)	2567	조혜숙	19	대학부	박경선(19)
2546	이영희	19	청년1부	문재현(19)	2568	이성기	12	청년2부	정진욱(12)
2547	이승일	15	청년3부	이영희(15)	2569	조혜숙	19	대학부	이복순(19)
2548	배희정	19	청년1부		2570	김진원	19	고동부	김경민(19)
2549	박학숙	2	청년1부	정복순(2)	2571	김지연	16	청년2부	김정원(16)
2550	김효선	19	대학부	정애희(19)					

※ 총회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